

축 사

산하대지가 오묘한 가을빛으로 물들어 가는 좋은 절기에 대한불교천태종이 서울 관문사에 옥불대보탑을 낙성하게 된 것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모든 종단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불자들의 소중한 원력이 모여 장엄을 이루고 뜻 깊은 불탑을 조성한 것도 경이로운 일인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심으로써 현시대의 희유한 불사를 이루어 내신 천태종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스님의 근념에 공경을 드리며, 종단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고마움과 더불어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탑 하나에 부처님의 팔 만 사천 법문이 새겨져 있고, 일체중생의 해탈성불을 향한 큰 원력이 담겨있음을 감안하면, 오늘의 낙성은 단지 ‘탑’ 이라는 이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땅에서 무수한 탑이 솟아올라 시회대중들이 한량없는 환희를 일으켰듯이, 오늘 관문사 옥불대보탑의 낙성도 현재를 살아가는 중생에게 무상정등정각의 묘법을 설하는 장광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천 년 전 이 땅을 찬란하게 비추었던 경천사 10층탑의 양식을 계승하여, 선대의 고귀함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신을 융해시켰다는 점에서도 정법의 계승 원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뜻 깊은 낙성의 광명으로 인류의 평화와 국민의 화합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의 염원이 성취되기를 모두의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첨단 문명의 시대에 문화가 융성되지 않으면 인성의 고갈과 윤리도덕의 타락으로 많은 병폐가 생겨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의 문화저변에 종교성이 깃들지 않으면 그 또한 무미건조할 뿐이므로, 우리 불교계가 더욱 깊고 넓은 통찰력으로 문화융성의 새로운 힘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함께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낙성하는 관문사옥불대보탑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 낸 전형이고 모범이라는 것을 공감하며, 불사에 매진해 오신 천태종의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사부대중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하고 뜻 깊은 낙성대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불보살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30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